

# “GS전 나오지마”...배구계, ‘친정팀 출전금지’ 논란 확산

GS칼텍스, 페퍼에 오지영 이적하며 조건 달아 타 선수들은 친정팀 상대로 자유롭게 출전 중 한국배구연맹, 이번 사태로 관련 규정 고칠 듯

여자프로배구 GS칼텍스에서 페퍼저축은행으로 이적한 리베로 오지영(35)이 친정팀을 상대로 출전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3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GS칼텍스전을 앞두고 오지영 결장 소식을 전하며 “트레이드 과정에서 오지영을 올 시즌 GS칼텍스와의 남은 경기에는 투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막 후 전패 중이던 페퍼는 지난해 말 2024~2025시즌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주면서 GS칼텍스로부터 베테랑 리베로 오지영을 영입했다. 이후 오지영은 줄곧 선발로 뛰었고 페퍼는 전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런 오지영이 구단 간 합의로 올 시즌 양 팀 간 대결에서 출전이 금지된 것으로 드러나자 배구계 일각에서는 선수 권리가 침해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특정 선수에게 출전 기회가 제한되면 개인 기록 등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경기를 즐기는 관중의 입장에서도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페퍼가 GS칼텍스를 꺾어 여자부 안방 최다 연패(13연패)를 끊었기에 망정이지 페퍼가 이번에도 졌다면 오지영 결장을 둘러싼 비판 여론은 한층 더 끓어올라 수도 있었다. 아울러 오지영 출전을 막은 이번 GS칼텍스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시각도 있다. 페퍼는 1승에 목마른 팀으로 기량 면에서 GS칼텍스에

몇 수 아래로 평가되는 팀이었다. 그런 팀을 상대로 핵심 오지영을 빼라고 요구하는 게 온당하느냐는 비판이다. GS칼텍스가 주전에서 밀려난 오지영을 페퍼로 보내면서 선수의 출전 기회를 보장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번 합의가 드러나자 배구팬이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GS칼텍스는 연맹 규정 범위 안에서 구단 간 합의를 했다며 난처하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오지영을 보낸 대신 1년 후 신인 지명권이 아닌 2년 후 신인 지명권을 받는 식으로 페퍼를 배려했으며 그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출전 금지 조항을 넣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게 GS칼텍스의 설명이다. 연맹이 이 같은 합의를 허용한 상황에서 GS칼텍스가 굳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빼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맹은 선수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하면서 구단들과 개선 방안을



페퍼저축은행 오지영.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연맹과 구단들이 그간의 관행을 깨고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



## 김민재의 나폴리, 33년 만의 우승에 청신호...2위 밀란 대패

AC밀란, 라치오에 0-4 완패...선두 나폴리와 승점 12점 차

국가대표 '괴물 수비수' 김민재(27)의 소속 팀인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나폴리가 독주 체제를 굳히면서 33년 만의 리그 우승에 한 발 더 다가갔다. 나폴리의 1위 질주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쟁 팀들이 스스로 넘어지고 있다. 2위 AC밀란은 25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스타디오 올림피코에서 열린 라치오와의 2022~2023시즌 세리에A 1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4로 크게 졌다. 리그 6경기 무패(3승3무)를 이어오던 밀란은 이날 시즌 3패째를 기록하며 승점 38(11승 5무3패)에 머물렀다. 이로써 선두인 나폴리(승점 50·16승2무1패)와의 승점 차는 무려 12점이 됐다.

한때 5점 가까이 좁혀졌던 양 팀의 격차는 최근 3경기에서 다시 벌어졌다. 나폴리가 3연승을 달린 사이, 밀란이 2무1패로 주춤했다. 또 나폴리를 추격 중이던 유벤투스도 최근 분식회계 의혹으로 승점 15점이 깎이는 징계를 받아 10위까지 추락했다. 나폴리는 1990년 이후 33년 만에 리그 우승에 도전한다. 나폴리가 정상에 오르면 이번 시즌 이탈리아 무대에 입성한 김민재는 유럽 진출 후 첫 우승을 경험한다. 팀 내 주전 수비수로 뛰는 김민재는 정규리그 18경기에서 2골을 기록 중이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등을 포함하면 공식전 25경기(2골)를 소화하고 있다.

## 강민구, 프로당구 결승전 5차례 도전 끝에 우승

“포스트시즌 잘 준비하겠다...월드챔피언십도 최선”



강민구(39·블루원리조트)가 프로당구 결승전만 4년 5기 끝에 우승을 일궈냈다. 강민구는 지난 24일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방승센터에서 열린 '월드챔피언십 웰빙 PBA-LPBA 챔피언십' PBA 결승전서 응고된 나이(베트남·SK렌터카)를 세트스코어 4-2(14-15 15-6 2-15 15-7 15-9 15-5)로 꺾고 PBA 16번째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PBA 도전 4년 만에 처음으로 상금 1억 원과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강민구는 PBA 출범 후 네 차례 결승전서 모두 준우승에 머무르는 불운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무려 710일 만에 도전한 다섯 번째 결승전에선 장기간 '뱅크샷'을 앞세워 우승을 거머쥐었다. 무려 16개의 뱅크샷을 성공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강민구는 “우승 직후 소름이 돋았다. 등 아래부터 짜릿함이 올라왔다”면서 “그간의 준우승과 부진으로 가슴에 맺혀있던 한을 분출하는 의미였다. 특히 준우승보다는 2년간 성적을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용납이 잘 안됐다”고 밝혔다. 강민구는 “남은 대회인 8차 투어와 포스트시즌도 잘 준비하고, 월드챔피언십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김민재, 설날 백두장사 등극...영암군씨름단 3체급 석권

### 개인 통산 두 번째 백두장사

김민재(영암군민속씨름단)가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백두장사에 등극했고, 영암군민속씨름단은 3체급을 석권했다. 김민재(영암군민속씨름단)는 24일 전남 영암군 영암살내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3 설날장사씨름대회' 백두장사(140kg 이하) 결정전(5관 3선승제)에서 오정민(문경새재씨름단)을 3-0으로 꺾고 꽃가마에 올랐다. 지난해 단오대회에서 생애 첫 백두장사에 오른 김민재는 개인 통산 두 번째 백두장사에 등극했다.

김민재는 8강에서 김진(증평군청)을 2-1로 제압하고 4강에서 장성복(문경새재씨름단)을 2-0으로 꺾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마지막 상대는 백두급의 강자 오정민(문경새재씨름단)이었다. 첫 번째 판을 잡게기로 가져온 김민재는 두 번째 판도 들베지기로 이기며 승기를 잡았다. 김민재는 세 번째 판 역시 밀어치기를 선보이면서 경기를 끝냈다. 김기태 감독과 윤정수 코치가 이끄는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최정만(금강), 차민수(한라), 김민재(백두) 등 3체급을 석권해 설날장사씨름대회를 마쳤다.



영암=조대호 기자

## 메이저리그 진출 노리는 이정후

### ‘슈퍼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 선임

이정후, 2023시즌 뒤 포스팅 시스템 통해 MLB 도전



2023시즌 뒤 메이저리그(MLB) 진출에 도전하는 이정후(26·키움 히어로즈)가 ‘슈퍼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와 손을 잡았다. 미국 뉴욕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존 헤이먼은 25일(한국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KBO리그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이자 2023시즌이 끝난 뒤 미국에 도전하는 이정후가 보라스를 에이전트로 선임했다”고 전했다. 보라스는 구단에는 악마, 선수에게는 천사로 불리는 당대 MLB 최고의 에이전트다. 박찬호(은화),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전트를 맡아 국내 야구 팬들에게도 친숙하다. 보라스는 2019시즌 뒤 프리에이전트(FA) 시장에서 고객으로 보유한 FA 선수들의 계약 총액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당시 FA 자격을 얻은 류현진도 토론토와 4년, 8000만 달러에 계약했다. 보라스는 계약 총액의 5% 수준인 5000만 달

러 정도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겨울에도 보라스는 유격서 젠더 보가츠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11년, 2억8000만 달러의 계약을 이끌어냈다. 미국 무대 도전을 택한 강속구 투수 심준석과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계약을 이뤄낸 것도 보라스다. 보라스가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한 적도 있다. KIA 타이거즈 외야수 나성범은 NC 다이노스 시절인 2020년 시즌을 마치고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MLB 진출을 추진했다. 당시 보라스를 에이전트로 택했다. 하지만 나성범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MLB 시장이 얼어붙은데다 2019시즌 도중 당한 무릎 부상, 적지 않은 나이가 걸림돌이 돼 끝내 계약을 이루지 못했다. 2022시즌 타격 5관왕에 등극하며 리그 최고의 타자로 군림한 이정후는 이번 겨울 MLB 진출을 공언하며 일찌감치 준비를 마쳤다. 2023시즌 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MLB 진출을 시도할 수 있는 이정후는 2022시즌을 마치고 일찌감치 구단의 허락을 받아냈다. 이정후는 이달 초 일찌감치 미국으로 떠나 2023시즌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MLB 투수들의 공을 공략하고자 데뷔 이후 처음으로 타격폼도 수정하고 있다. 이정후가 MLB 구단과 계약을 맺으면 KBO 리그에서 포스팅 시스템을 거쳐 MLB 무대를 밟는 최초의 외야수가 된다. 그의 계약 규모도 큰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KBO리그에서 뛰다 MLB에 진출한 선수 가운데 계약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은 류현진이다. 류현진은 2013년 LA 다저스와 계약하면서 6년 총액 3600만 달러를 받았다. 리그 최고의 타자로 거듭난 이정후가 류현진의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광주FC 산드로. (사진=광주FC 제공)

## 외국인 한도 늘어난 K리그 외국인 부주장도 나왔다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부주장 직책을 맡는 외국인 선수도 나왔다. K리그1로 승격한 광주FC는 25일 부주장직에 브라질 출신 공격수 산드로를 임명했다. 외신은 “올 시즌 외국인 선수 쿼터가 늘어나 외인부대의 역할도 중요해진 만큼 그라운드 안팎에서 산드로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K리그 구단들은 ‘국적 무관 외국인 3명 +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 소속 국가 선수 1명 + 동남아시아 선수 1명’으로 5명까지 보유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국적 무관 5명 + AFC 가맹국 국적 1명’으로 6명까지 보유할 수 있다. 산드로는 처음 맡는 부주장직에 열렬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팀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여름 합류해 19경기 7골 4도움으로 맹활약하면서 광주의 1부 승격을 이끌었다. 산드로는 이번 시즌에는 국적과 언어가 각기 다른 5명의 외국인 선수를 이끌게 된다. 산드로 외에 호주 출신 수비수 아르, 알바니아 출신 원어 아사니, 브라질 출신 공격수 토마스, 네덜란드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티모가 있다. 산드로는 “영어를 잘 못하기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서 대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5개 국어를 하는 토마스에게 이야기해서 조금이라도 서로 가까워질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며 “훈련할 때 기본 좋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 중”이라고 언급했다.

뉴스